

한글 고전소설을 통해 본 조선 후기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

채 백**

이 논문은 소설이 허구의 세계이지만 그 시대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전제에서 조선시대의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총 8편의 한글 소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혈연간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하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며 비혈연 관계의 경우, 아는 사이에는 나이나 지위가 큰 차이가 없으면 상호 존중하는 어법을 사용하며 모르는 사이는 신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 관청과 민간에는 문서가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문맹이 대부분이었기에 구두 커뮤니케이션도 사용되었다. 마을 공동체 내에서는 우물가나 빨래터, 주막 등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공론이 형성되어 갔다. 매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도 편지나 문서, 일기와 책 등의 형태가 이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문서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쇄 시대 이전 구두의 증언이 문서보다 더 신뢰받던 서구와는 차별되는 측면이다. 남의 일기를 거리낌 없이 보는 것은 인쇄 문화의 특징인 프라이버시 관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책은 수양과 여가 선용의 목적으로 의관을 정제하고 낭독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어: 언론사 조선 인간커뮤니케이션 구두커뮤니케이션 집단커뮤니케이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이 연구는 조선 시대의 백성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살았는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그들은 어떠한 매체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며 주변의 가족이나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갔는지 즉 다양한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인간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수단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을 것이다. 이를 인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강길호·김현주, 1995, 15쪽). 본 연구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이루는 구두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7032)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bchae@pusan.ac.kr)

커뮤니케이션 즉, 문자나 그림, 인쇄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나은영, 2002, 26쪽). 이러한 시각은 조선시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를 보다 폭넓게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언론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전통 시대 일반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매스 미디어가 보급되기 이전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언론사 연구는 대부분 매스 미디어 중심의 역사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통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조선시대 제도적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연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승희(1976, 2004)와 목정균(1985), 김복수 외(1995), 김세철(2000), 김영주(1999, 2002, 2007, 2008a, 2008b, 2009a, 2009b, 2010, 2011), 박정규(1983), 이상갈(2007)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조선의 제도적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이 분야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정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희(1993)는 민요와 가면극, 민화 등을 분석하였으며 최영목(1987)은 탈춤과 판소리를 중심으로 민중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분석하였다. 박영학(1990), 정일권(2010)은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동학을 연구하였으며 김광옥(1993), 주정이(2000), 최병진(1983)은 참요와 가면극,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자료의 제한 때문에 개괄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료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보존된 기록들은 대부분 정부 관련 공식적 기록들이거나 그밖의 비공식적 기록들도 문자 해독능력을 갖춘 사대부층 중심이다. 대다수 백성들은 문자로부터 소외되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삶을 영위했는지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프랑스의 코린 쿨레(Corinne Coulet, 1996/1999)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 규명하였다. 쿨레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등의 고문헌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이 문헌들을 토대로 당시 사회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한 것이다. 쿨레의 이 작업이 본 연구의 모델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는 고전 소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통 시대의 고전 소설도 허구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루카치의 미학이론을 계승하여 소설사회학의 체계를 제시한 바 있는 루시앙 골드만(Lucien Goldmann, 1982, 17-21쪽)은 소설이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문학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회적 역사’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소설을 통해 과거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박철주(2011), 박일용(1991), 이민희(2009)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이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소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사회의 제반 측면을 규명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소설들이 당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에 생산, 유통되어 읽힌 다양한 한글 고전 소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으며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는가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근대 커뮤니케이션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설이라는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언론학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기존 한국 언론사 연구의 범위와 시각을 확대하며 전통시대의 전근대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공백을 메워나갈 단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소설은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유통도 대폭 확대되었다. 현재 존재 사실이 파악되는 것만 해도 총 858종에 이른다고 한다(조동일, 2001, 119쪽).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한글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하려 한다. 한문 소설은 독자층이 지식인 계층으로 한정되고, 그 표현 양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한글 소설은 상대적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창작, 유통된 종류와 판본도 훨씬 많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양상이 비교적 다양하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의 한글 소설 중 현재 전하는 것만 수십 종에 이르며 그 이분까지 고려하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텍스트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중국 소설을 번역한 것은 제외하고 장르를 안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소설을 아래와 같이 8종 선정하였다.¹⁾ 소설의 선정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것 중심으로 하였다. 여러 장르를 포괄하도록 한 것은 가능하면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사례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판본은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조웅전』과 『숙향전』은 최근 연구자들이 여러 판본들을 대조해 가면서 현대어로 고친 판본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8편의 소설 중 『조웅전』과 『소현성록』은 중국을 무대로 펼쳐지는 소설이다. 하지만 이 소설들도 조선에서 창작된 것으로서 필자나 대상 독자도 모두 조선인으로서 작품 속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은 당시 조선 백성들의 그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소설의 선정을 위해서는 국문학 분야에서 조선시대 한글 소설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자문을 받아 선정하였다.

<표 1> 분석대상 소설 목록

장르	제목	판본	출처
가족소설	소현성록	이대 소장본	조혜란·정선희 역주(2010), 『소현성록1』. ²⁾ 서울: 소명출판.
세태소설	배비장전	신구서림본	신해진 역(1999). 『조선후기세태소설선』. 서울: 월인.
	이춘풍전	서울대 가람본	신해진 역(1999). 『조선후기세태소설선』. 서울: 월인.
영웅소설	조웅전	조희웅 역본 ³⁾	조희웅 역주(2009). 『조웅전』.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홍길동전	경판24장본	김일렬 역주(1996). 『한국고전문학전집 25』.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연애소설	숙향전	박현균 역본 ⁴⁾	박현균 역(2007). 『숙향전』. 서울: 보리.
판소리소설	춘향전	박기홍 사설본	김진영 외 편(1997). 『춘향전전집1』. 서울: 박이정.
	심청전	완판 71장본	김진영 외 편(1998). 『심청전전집 3』. 서울: 박이정.

8종의 소설을 강독하면서 조선시대의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범위는 왕실과 관을 제외하고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포함하였다. 관청 간의 공문서나 기타 제도적 커뮤니케이션 사례들은 배제하였으며 관청과 관련된 사례 중에는 개인이 주체나 객체로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만을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개인이 관을 상대로, 혹은 관청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만을 포함하였다. 양반이나 관리들이 가정 내에서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한 커뮤니케이션도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양태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이렇게 추출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들을 크게 음성 언어에 의한 구두 커뮤니케이션과 매체를 매개로 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대별한 뒤, 사회적 관계나 상황에 따라 하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각 항목의 세부적인 유목들은 추출된 사례의 성격에 따라 귀납적으로 재분류하였다.

2. 조선 후기의 구두 커뮤니케이션

잘 알려진 대로 인쇄술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전통시대는 주로 음성 언어에 의한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였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다. 한자와 한글이라는 문자가 존재했지만 문자 해독은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었다. 목판과 금속활자 등 인쇄술도 존재하였지만 소수의 특권층

2) 이 소설은 삼대에 걸친 이야기로 4권으로 출판되었으나 비슷한 스토리가 세대를 달리하여 전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1권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3) 이 판본은 조희웅이 김동욱 편(1973).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影印古小說板刻本全集)』에 실린 것을 대본으로 하고 다른 판본들을 참고하여 현대어로 옮기고 주석한 것이다.

4) 박현균은 북한의 연구자로서 북한의 문예출판사가 2006년에 펴낸 것을 그대로 보리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이다. 어떤 판본을 기본으로 하였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만이 누렸을 뿐 대다수 백성들은 소외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음성 언어에 의한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러한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관계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혈연 간의 커뮤니케이션

(1) 부부간

부부간에는 대체로 상호 경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였다. 다음의 대화는 『배비장전』(247쪽)에서 배비장이 제주 목사로 부임을 앞두고 부인과 나눈 대화의 한 대목이다.

제주는 도중이나 물식이 변화하여 즈래(自來)로 식향이라. 만일 그곳 가섯다가 주식에 몸이 잠겨 회정치 못오면, 부모에게 불효되고 처즈에게 못홀 닐 두루 가(可)치 안스오니 심량조쳐호옵소서.

“그 일은 염녀마오. --(중략)-- 디장부 뜻을 혼번 세은 후에 웃지 요마흔 녀즈에게 신세를 맞초릿가? 중뫼를 호오리니 아무조록 방심호고 어마님께 효양(孝養)호오.

색향인 제주도에서 주색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면 큰일이니 깊이 헤아려 달라는 부인의 말에 대장부가 어찌 여자에 빠져 신세를 망치겠느냐며 굳게 맹세할 테니 안심하라는 내용이다. 서로 경어를 사용하여 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임의 정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부인은 남편에게 존경법과 겸양법, 공손법을 모두 사용하며 깎듯하게 높이고 있다. 여기서 존경법은 ‘드시다’나 ‘하시다’처럼 주체를 높여주는 어법이고 겸양법은 ‘여쭙다’처럼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여주는 어법이며 공손법은 종결어미 ‘습니다’, ‘어요’ 등을 사용하여 공손하게 표현하는 어법을 말한다(이광호, 2005). 부인은 남편에게 이 세 가지 경어법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부인에게 위의 예에서 ‘효양하오’라는 하오체의 예사높임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남편이 부인에게도 ‘하소서’의 공손법을 사용하는 사례(조웅전, 67쪽)도 있기는 하였지만 그 사례는 드물었다. 이는 부부간에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남녀에 따라 그 공손법의 사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부부간의 경어법 사용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하위직 관리나 상민들의 경우는 부부간의 대화에서 격식이나 높임의 정도가 완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호칭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있었다. 부인은 남편을 그 직위로 부르는 반면 남편은 ‘부인’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부인의 성씨를 부르는 경우가 빈번하였다(소현성록, 222쪽과 239쪽). 부부간의 호칭도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몰락 양반을 풍자한 『이춘풍전』(329-330쪽)을 보면 가산을 탕진한 이춘풍의 처지를 부인이 한탄하며 “**여보시오**, 니 말삼 드러 보소. --(중략)--부귀도 공명인니 그것슬 마드하고 **인역혼** 웃지하여 부모의 세전지물을 일조의

다 읊지고 슈다흔 노비 전답 뉘게 다 전장하여 쳐즈을 돌보잔코 일신을 맞치고 ---(중략)---춘풍이 디답하되, **자네** 니 말 드러보계”라고 주고받는다. 이 대화에서는 상호 경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존경의 정도가 완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호칭에서도 부인이 남편을 ‘여보시오’나 ‘이녁’이라 부르며 남편은 부인을 ‘자네’라 하여 경어의 수준이 매우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와 자식간

자식은 스스로를 ‘소자’(배비장전, 246쪽), ‘소인’(홍길동전, 18쪽) 등으로 낮추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친’(홍길동전, 65쪽)⁵⁾ 혹은 ‘모친’(조웅전, 55쪽) 등으로 호칭하며 항상 깎듯한 경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적자와 서자의 신분에서 따른 차별은 엄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홍길동은 서자라서 호부호형을 할 수 없었고 어린 시절 호부호형 할 때면 매번 야단을 맞았으며(『홍길동전』, 16쪽), 이런 신세를 한탄하여 집을 나가려고 부친께 고하는 대목에서도 “지상이 천비쇼성이 비단 너썬이 아니여든, 네 엇지 방즈흐미 이갓흐요?”(18쪽)라고 강하게 꾸지람을 듣는다. 길동의 부친은 나중에 임종 직전에 큰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 적서를 구분하지 말고 길동의 어머니도 잘 대접하라고 하였다(66쪽). 적서의 차별이 엄격하였으며 이러한 차별이 상위계층 집안에서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서의 차별은 조선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나 15세기 이후 양반 인구를 제한할 필요성 때문에 더욱 심해지면서 서열에 대해서는 관직으로의 출세도 제한받기 시작하였다(이이효재, 2003, 78쪽).

축첩제가 용인되던 상황 속에서 조선시대 집안 내의 관계는 서모와 서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등 복잡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소현성록』에서 잘 나타난다. 적자와 서모는 상호 경어체를 사용하였으며(59쪽) 서모와 적자의 부인 간에도 마찬가지로였다. 서모는 적자의 부인을 ‘남자’ 혹은 ‘부인’ 등으로 칭하며 격식체를 사용한 반면 며느리는 서모에게 예사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108쪽).

처가와외의 관계에서는 장인은 사위를 ‘자네’라 호칭하며 하대하고, 사위는 경어를 사용하였다(181쪽). 반면 장모와 사위 간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춘향전』(265쪽)을 보면 월매가 이도령에게 “안쥬가 없는거슨 중모의 허물이니 용서하시고 술리는 만히 잡스시오”라고 깎듯하게 경어를 사용하는 대목이 나온다. 반면 거지 행색으로 돌아온 이몽룡을 보고는 장모가 “춘향도 기가 막혀 흐는 마리 이셔방 엇지햐야 이 모양이며 왜 저리 되얏느”고 하대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장모와 사위 간에는 상황에 따라 장모가 사위에게 존대도 하지만 하대도 하는 것은 초기에는 신분의 차이도 있으므로 존대하였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편하게 하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5) 홍길동이 직접 대면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하였다.

(3) 동기간

형제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위의 형제는 손아래 동생들에게 하대하며 그 반대로는 경어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변수가 되지 않았다. 남매간에도 누나는 동생의 지위에 상관없이 하대하며 동생은 깍듯한 경어를 사용하였다. 『숙향전』(285쪽)을 보면 동생인 상서 댁을 누나 여부인이 방문하여 만나는 장면에서 누나가 화를 내며 “요사이 벼슬이 높고 위엄이 중하면 동기도 업수이여겨 질제하려 하느뇨?”라고 언성을 높이자 동생인 상서가 황공해 하며 “어찌 이르시는 말씀이니이까?”라고 응대한다. 숙향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서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숙향을 어여삐 여기던 그 누나가 듣고는 동생을 찾아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사이다. 누나는 비록 동생이 높은 벼슬을 하고 있지만 평어체를 사용하며 야단치지만 동생은 깍듯한 경어체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혼인으로 맺어지는 처가 및 시가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처남, 매부 간에도 손위와 손아래의 관계가 기준이 되며 벼슬의 고하 등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소현성록』(191쪽)의 주인공 소생이 첩을 들이는 잔치에서 손위 자형 한생과 아래와 같이 대화한다.

“이제 장모님께서 비록 신부를 데려올지라도 이처럼 단정한 체하는 신부는 없을 것입니다. 자문아, 네가 조정에 가서는 상쾌하고 숙엄하여 전혀 이렇게 앓더니 어찌 집에서는 이처럼 얌전하냐?”

상서가 바야흐로 잠깐 희롱하여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자형처럼 부모님 눈앞에서는 모진 기운을 드날리고 벼슬살이하면서는 아래 사람에게 몸을 구부려 공손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형도 과거에 3등으로 급제하였지만 처남인 주인공은 장원급제하였으므로 벼슬은 어린 처남이 더 높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형은 처남에게 농담조로 말을 건네며 하대하여도 처남은 깍듯한 경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시집에서 여성들 사이에서도 적용되었다. 『소현성록』(157쪽)을 보면 시누이 소씨와 올케 화씨가 나누는 대화에서 손위의 시누이 소씨가 올케인 화씨에게 ‘~하게’체를 사용하고 있다.

2) 비혈연 간의 커뮤니케이션

다음으로는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이를 이미 아는 사이와 모르는 사이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기로 하자.

(1) 아는 사이

먼저, 사돈 간의 관계에서는 상호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는 낮추고 상대의 자녀를 칭찬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고 있다. 『소현

성록』(331-332쪽)을 보면 주인공의 혼인을 앞두고 양가의 부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대화한다.

“부인이 뛰어난 딸을 두셨으면서도 제 아들의 못나고 추함을 싫어하지 않으시어 혼인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그윽하고 한가로우며 정숙하여 숙녀의 풍채가 있으니, 이는 다 부인의 덕택입니다.”

양부인이 겸손하게 사례하며 말하였다.

“홀로된 제가 못난 자식을 거룩한 가문에 보내고 밤낮으로 걱정하는 바는 죄를 얻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런데 부인들께서 너그러우시고 거룩하신 덕을 열어 세월을 무사하게 지내니, 이는 다 높으신 가문의 어지심 덕분이며, 어진 사위들이 관대하여 아내의 작은 허물을 용서한 덕입니다. 제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구천에 가더라도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양쪽 모두 자기 자식의 부족함을 거론하며 거두어 주는 상대 집안의 너그러움을 칭송하는 식으로 격식을 갖추어 예를 다하고 있다.

한편 동료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형님 또는 형이라 칭하며 서로 존대하였다. 상대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대하지 않고 지위를 존중하여 주었다. 『소현성록』(236쪽)을 보면 집 근처에서 낚시하던 주인공 상서가 같이 과거에 급제했던 동임들의 방문을 맞아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형님이 여기에 왜 와계십니까?”

상서가 답하였다.

“국화 향기를 맡으니 맑고 깨끗한 가을 물이 생각나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형들이 찾아오니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중략)---

“소형은 진실로 맑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선경을 대하여 낚시를 노니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형이 부럽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영주산을 아침 저녁으로 대하셨군요.”

14세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한 주인공 보다는 대부분의 동임들이 나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형이라 칭하며 상호 경어를 사용하고 있다.

(2)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어법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양반들이 기생이나 뱃사공 같은 천민이나 중인을 대할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하대하는 어법을 구사하였다. 신분이 같을 경우에는 나이가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배비장전』(269쪽)을 보면 애랑이 방자에게 말을 건네며 아래와 같은 대화가 전개된다.

“이 애, 네 무엇을 찾느냐?”

“옷 찾소.”

“무슨 옷이냐?”

“베고의적스시오.”

“이놈아, 이스 월에 베옷을 내여 무엇 호느냐?”

애랑이 방자에게 ‘이 애’ 혹은 ‘이놈’이라며 하대하지만 방자는 ‘하오’체를 구사하고 있다. 모르는 사이였지만 외모나 상황으로 보아 신분이 금방 판단 가능하며, 애랑이 방자의 나이가 자기보다 적다고 보아서 하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친교가 쌓이면서 방자 역시 애랑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편하게 반말을 주고받는 형태로 바뀐다.

한편 외모나 상황으로 신분이나 연령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색이나 옷차림 등 신분의 높고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가 대화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배비장전』(316-317쪽)에서 곤경에 빠진 배비장이 물질하는 어느 해녀에게 배편을 물어보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여보게 이 사람, 말슴 무러 보세.”

그 계집이 혼춤 물쓰름이 보다가 더답도 아니호고 고기를 외두루니, 비비장 그 중에도 분히라고 목소리를 도도와 다시 칙망검 못것다.

“이 스름, 량반이 말슴 무르면 엇지호야 대답이 업노?”

“무슨 말이람나? 량반 량반 무슨 량반이야 **형금이 조와야 량반이지**, 량반이면 남녀유별 레의 엄치도 모르고 남의 녀인네 발가벗고 일호는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면, 싸락이 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잊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춤 듯기 실쿤, 어셔 가소. 오리지 아니호야 우리 집 남정네가 물 속에서 전복 싸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거시니 어셔 빗비 가시라구.

배비장의 행색이 하도 궁색하니 해녀가 쌀쌀맞게 대하면서 행색으로 보아 양반 같지도 않은데 초면에 무슨 반말이냐며 오히려 면박하고 있다. 또한 물질을 위한 옷차림의 여인에게 외간 남자가 말을 거는 데 대해서도 면박하며 남편이 보면 큰일이니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옷차림이나 외모가 신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남녀유별의 엄격함도 잘 알 수 있다.

초면에 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 본인의 관직이 없으면 아버지의 직위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홍길동전』을 보면 길동이나 절을 방문하여 스님에게 자신의 신분을 “나는 경성 홍판셔뎡 즈제라”(34쪽)고 밝힌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분과 가문,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상대에게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집단커뮤니케이션

(1) 관청과의 커뮤니케이션

관청과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은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관청의 상의하달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구두 커뮤니케이션 사례만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방 관청이 일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하거나 전달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하급 관리들이 직접 방문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춘향전』(285-286쪽)을 보면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라는 명령을 관리들이 춘향의 집을 방문하여 전달하는 장면이 나온다. 두 명의 관리가 춘향의 집을 찾아와 “사또가 즈니를 슈청거헝 식인드고 직축이 디단”하다고 전한다.

한편 하의상달의 경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관청에 가서 이를 하소연하며 해결책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소현성록』(268-269쪽)의 주인공이 강주 안찰사로 부임하였는데, 하루는 부하 관리가 한 젊은이와 함께 와서 “이 선비가 미친 말을 하면서 어르신께 아뢰겠다고 하여 반 일을 싸우다가 마지못하여 데려 왔습니다”고 고하였다. 이에 안찰사가 “선비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원한이 있느냐? 마음 속 생각을 말하면 판결해 주겠다”고 말한다. 그 선비가 사기당한 사연을 털어 놓자 안찰사는 당사자들을 불러 문초하여 단죄함으로써 해결해 주었다.

이 장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이 하급 관리보다는 최상위자에게 직접 하소연하기를 희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급 관리는 이를 규제하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 안찰사에게 대령한 것이다. 이는 당시 지방 관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거나 설령 존재했다라도 대부분의 관리들이 백성들의 민원에 무관심하거나 불친절했던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하급 관리에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에 직접 안찰사에 소청하려 시도했으리라는 말이다.

관리들의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부정적인 행태 때문에 촌지를 주는 풍습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춘향전』(286쪽)을 보면 수청을 들라는 변사또의 명령을 전하러 온 사령들에게 월매와 춘향은 술을 거나하게 대접하고도 돌아가는 그들에게 “춘향이 돈 석양을 니여 노흐며 이것시 약쇼흐나 드러가드가 약주는 한 존 먹고 가쇼”라고 촌지를 주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사건이나 사고를 목격한 자가 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해결을 촉구한 사례도 있다. 『홍길동전』(35-36쪽)을 보면 길동의 무리가 절의 재물을 탈취하자 그 장면을 목격한 절의 하인이 관청으로 달려가 고발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합천 원이 듯고 관군을 조발호여 그 도적을 잡으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이다.

집단적인 민원의 경우는 등장(等壯)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집단적으로 지방 관서에 몰려가서 억울한 사정을 항의하고 시정해달라고 호소하는 방법이었다(이상희, 1993, 79쪽). 춘향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남원 지역의 과부들이 집단으로 관청에 몰려가 항의 겸 호소하는 장면이 나온다(『춘향전』, 316-317쪽).

이 씨 남원읍 노쇼과부 씨를 지어 모히들어 춘향을 살이라고 어스도게 **등중을 왔는디** --- (중략)---
 슈빅명 씨과부가 동헌뜰의 갖득 츠니 어스도 분부호되 엇더한 부인들리 이다지 만히 왔노 무슴 연고를
 알외라 그 중의 늘근 부인 출반호야 알외는디 과부등 발괄흙은 지원극통한 일 잇삼기로 명출호신
 어스또 압히 등중츠로 왔는이디

과부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몰려가 동헌을 가득 메우자 사또가 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제일 연장자가 나서 사또께 등장할 일이 있어 왔다고 아뢰면서 춘향의 옥살이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백성들의 의사가 관청에 전달되는 것은 당사자 혹은 관계자가 개인이나 집단적으
 로 관청에 가서 사연을 구술하고 해결책을 청원함으로써 하의상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마을 공동체 내의 커뮤니케이션

마을에서 공동 관심사가 발생하면 자연스레 공론이 형성되면서 이에 따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심청전』에서 잘 나타난다. 심청
 어머니가 죽자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그 장례를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장면에서 “도화동
 사름더리 남녀노소 업시 묘와 낙누호며 호는 말리 현철으든 꺾씨부인 불상이도 죽어구나
 우리 동너 빅여 호라 십시일반으로 감장이나 호여 주시 **공논이 여출일구호야**”(218쪽)라는
 대목이 나온다. 마을 사람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 슬퍼하며 백여호가 십시일반으로 돕자는
 의견이 자연스레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심봉사가 궁색한 살림에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본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돕자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편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가자 마을 사람들이
 그 효성을 가늠히 여겨 비석을 세워(249쪽) 기렸다고 한다. 여기서도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한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에 대한 정보들이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정보의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
 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쉽게도 소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전달의 메커니즘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통해 전파되었다. 마을의 부인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나 냇가, 그리고 주막 등이 대표적이다.
 『심청전』을 보면 부인이 죽고 난 뒤 동냥젖에 의존해 심청이를 키우던 심봉사가 우물가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온다(220쪽).

어린아히 잇난 집을 차레로 무러 동영젖슬 어더 먹일 제 기 눈 어두어 보든 못호고 귀는 발가 눈치로
 간음호고 안자다가 마침 날 도들 격의 우물가의 들너난 소리 얼는 듯고 나서면서 여보시오 마누라⁶⁾님

6) 마누라라는 호칭은 요즘은 대개 자신의 부인을 낮추어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고관대작의 부인
 이나 상대방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춘풍전』(347쪽)에서도 춘풍의 처가 도승지의 모친에
 게 상을 차려 접대하면서 ‘마노라님’이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여보 아씨님네 이자식 젓슬 좀 먹여주오

젓동냥을 위해 새벽까지 잠을 안 자다가 동이 터 올라 우물가에 사람 소리가 들리자 얼른 나서서 심청이에게 젓을 먹여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다. 이 장소에서 새로운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가정이나 주변에 다시 전함으로써 정보가 확산되어 갔을 것이다. 뱃사람들이 처지를 산다는 사실을 심청이 알게 된 것도 그 과정이나 정보원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고 ‘호로난 드르니’이라고 표현하여(『심청전』, 230쪽) 주변으로부터 떠도는 소문을 들은 것으로 묘사하였다.

집밖 활동을 자제하던 양반댁 부인들의 경우는 잔심부름하는 사환들을 통해 외부의 소식을 들곤 하였다. 『이춘풍전』(346쪽)을 보면 춘풍의 처가 근처에 사는 전 도승지의 자제가 평양감사 하고 싶어 로비한다는 말을 사환으로부터 듣고 그 모친을 접대하며 청탁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마을의 단위를 넘어선 지역의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주막이나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주요 통로가 되었다. 『이춘풍전』(336쪽)을 보면 춘풍이 수천 냥의 돈을 가지고 곧 평양에 온다는 소식을 기생 추월이가 ‘서울 스는 부성디고’(富商大賈)로부터 미리 듣고 춘풍을 유혹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상인들은 각지를 이동하다 보니 여러 지역의 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다른 지역에 유통시키는 주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윤병철(2006, 135-137쪽)도 17세기 후반부터 상업과 시장이 발달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외지인들이 숙식문제를 주로 의존하는 주막은 마을 단위를 넘어서 정보를 유통시키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소현성록』(267-268쪽)을 보면 주인공이 강주 안찰사로 부임하면서 현지에 먼저 도착하여 주막 등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여러 정보들을 탐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 과정을 통해 현지 인심을 살핀 후 통지를 하고 그 날로 부임하였다는 것이다. 『홍길동전』(40쪽)에도 길동을 잡아들이라는 왕명을 받은 우포장이 포졸 몇 명을 거느리고 번복하고 문경 지역의 주막에 들러 홍길동에 대한 민심을 탐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주막은 마을 사람들이 외지의 정보를 얻는 장소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정보의 전파가 마을 단위를 넘어서 유통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는 마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단위까지 소문의 형태로 유포되면서 전달되어 갔다. 맹인 아버지를 지극히 모시는 효녀 심청의 소문이 인근에 널리 퍼져 한양의 장승상댁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소문을 들은 승상댁 부인이 하인을 보내 심청이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는 장면이 나온다(『심청전』, 223쪽). 『홍길동전』(52쪽)에도 길동이를 잡아 한양으로 보내는 장면에서 “각읍 빅성드리 길동이 지조를 드러는지라, 잡아오물 듯고 길이 머여 구경허더라”는 대목이 나온다. 길동의 소문을 익히 들은 각 지역 백성들이 압송되는 길가에 구경하러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때로는 국가의 단위를 넘어 인근 국가에까지도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길동전』(54쪽)을 보면 홍길동의 재주가 매우 무쌍하여 잡기가 어렵자 조정이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홍길동이 사대문에 방을 부쳐 자신을 병조판서 시켜주면 잡힐 것이라 하였다. 이에 왕을 비롯한 대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여러 신하들이 “이제 그 도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옵고 도로혀 병조판서 제슈하시른 불가스문어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로쇼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도적을 잡으려다가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병조판서를 시킨다는 것은 인근 다른 나라에 알려지면 국가적 위신에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는 말이다. 이는 역으로 인근 나라에도 소문이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3. 조선 후기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조선시대의 백성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단들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그 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편지

(1) 편지의 활용

문자를 매개로 한 편지는 문자 해독층에 제한되지만 성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편지는 주로 기존의 아는 사이에서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그것도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 간에 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보면 여행이나 외지 부임 등의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 편지를 통해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하였다. 가족 간의 편지 커뮤니케이션 중에는 부부간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한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게 된 부부가 편지를 통해 사연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춘향전』(285쪽/295쪽)과 『숙향전』(288-289쪽)에 그러한 사례가 등장한다.

특이한 것은 한 집에 기거하는 부부 사이에도 편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소현성록』의 주인공 소경이 첩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에 대रो하여 이를 글로 적어 전하였다. 편지에서 “차마 마주 대하지 못하고 글로 부치오”라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부부의 연을 끊을 것이니 잘 생각해 보고 답하라고 단호한 뜻을 전하였다(374쪽).

그밖에 모자간(『소현성록』 279쪽), 남매간(『소현성록』 382쪽), 사촌 남매간(『조웅전』 57-60쪽) 등 다양한 관계에서 편지가 소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편지를 통해 근황과 안부를 전하였다.

편지는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주로 청춘남녀들이 애정을 표하고

전달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배비장전』(294-295쪽)을 보면 주인공 배비장이 제주에 부임하여 그곳 기생 애랑과 편지를 몇 차례 주고받는 장면이 나온다. 남녀 간의 연애가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 편지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확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을 것이다.

(2) 편지의 전달 방법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했다. 근대 우편제도가 없던 조선시대에 편지는 크게 나누면 사람과 동물의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전달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사람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사례를 보면 방자와 같은 노비를 시켜 편지를 전달한 사례가 많았다. 『배비장전』(294-295쪽)에서 배비장이 기생 애랑에게 방자를 통해 편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며 『춘향전』(285쪽)에도 한양에 간 이몽룡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자 편에 춘향에게 편지를 보낸다.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인편이 있으면 이를 통해 전달하였다. 『소현성록』(279쪽)을 보면 강주에 부임한 주인공이 한양에 가는 인편을 통해 모친에게 편지를 전한다. 먼 거리이지만 인편이 없을 경우 특별히 사람을 구해서 전달하였다. 『춘향전』(295쪽)을 보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춘향을 불쌍히 여긴 포졸이 서울 간 이도령에게 편지나 한번 해보라고 권한다. 이에 춘향이 “그 말도 당연하오 사람 하나 엇어주요”라고 부탁하여 이도령을 모시던 방자를 대령하니 춘향이 반기면서 “돈 열 양 지금 줄 것시니 셔울가셔 돈여오면 축면 혼 벌 허여줍세”라고 말한다. 편지를 방자 편에 보내며 사례금도 주고 다녀오면 솜옷도 한 벌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원거리에 편지를 전할 일이 생길 경우 사람을 구해 사례를 하고는 편지를 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처럼 사례를 받고 원거리에 편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인편과 구분하여 전인(專人)이라 하였다. 전인은 나름대로 원행을 하는 데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로서 길눈이 밝고, 담력과 임기응변 능력이 있으며 정직성을 겸비한 인물들이 주로 채택되었다고 한다(하영휘, 2008, 210-212쪽).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편지와 관련하여 동물이 거론된 사례들도 여러 건 등장하였다. 가장 많았던 것은 기러기이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모두 기러기를 통해 직접 편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기러기가 없어 편지를 못 전한다거나(『배비장전』, 268쪽),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며 그리운 사람의 편지를 그리는(『춘향전』, 294쪽과 『심청전』(254-255쪽) 내용들이다. 실제 비둘기를 전서구(傳書鳩)라 하여 정치나 군사 등 특정 목적에 훈련된 비둘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지만⁷⁾ 일반인들이 이를 직접 이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기러기라면 그리운 임의 편지를 은유하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 백성들로서는 편지를 전할 일이 있으면 대개 사람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7)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도 『조선일보』가 1936년 민족문화 발굴을 위한 산악운동을 전개하며 그해 8.15특집으로 백두산 탐방 기사를 취재하면서 비둘기를 통신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백두산 정상에서 비둘기를 이용해 보낸 기사를 그 아래 함북 무주군 경찰서에서 받아 전화로 서울 본사에 송고하였다는 것이다(조선일보사, 2010, 374-375쪽).

2) 문서

편지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문자를 매개로 한 문서가 다양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그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기로 하자.

(1)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의 문서

문서가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관청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문서에 의존하였지만 개인들 사이의 정보 전달은 편지 외에 다른 형태의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만 관이 개인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 문서가 사용되었다. 다수의 백성들을 상대로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방을 붙여 알렸으며 특정인에게 전달 사항이 있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 방을 이용하였다. 『홍길동전』(48-50쪽)을 보면 홍길동이 각지에서 조화를 부리며 문제를 일으키자 왕은 길동의 이복형인 홍인형을 경상 감사에 임명하며 1년 안에 잡아 올리라 명한다. 이에 홍인형은 관내 각 읍에 길동을 달래는 방을 붙인다.

한편 다중들을 상대로 전할 말이 있을 경우에도 이 방을 이용하였다. 탐관오리 함경감사가 백성들을 착취하자 홍길동이 남문 밖에 불을 질러 창고의 곡식과 기물을 훔치고는 스스로 방을 붙여 ‘아모날 전곡 도적혼 죽는 할빈당 횡슈 홍길동이라’고 밝힌다(『홍길동전』, 37-38쪽). 『조웅전』(67쪽)에도 주인공 조웅이 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이두병에 분노하여 사생결단할 각오로 경회문으로 갔으나 “문안에 군사 수다하고 문을 굳이 닫았는지라 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필낭(筆囊)의 붓을 내어 경회문에 대서특필하여 이두병을 욕하는 글 수삼 구(數三句)를 지어 쓰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글들은 그대로 옮겨 적어 왕에게 그대로 보고 되었다(『조웅전』, 70-71쪽).

관리들의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관청은 그 가족들에게 선문(先文)을 통하여 미리 통지하였다. 『소현성록』(289쪽)을 보면 강주에 부임한 주인공 소경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선문을 통해 미리 알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온다. 관청의 인사 이동 등 개인과 관련 있는 정보를 그 가족들에게 미리 통보해 줌으로써 적응을 도와주는 대민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선문이 일대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다중을 상대로 공지할 때는 관자(關子)가 이용되었다. 이는 원래 관청의 문서를 뜻하는 용어인데, 백성들에게 공지할 때에도 이용된 것 같다. 『조웅전』(154쪽)을 보면 전장터에 나간 주인공 조웅의 생사를 그 가족들이 관자를 통해서 유추하는 장면이 나온다. 관자에 개개인의 생사 여부가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번을 평정하였사오니 변방 백성들이 요동치 말라’는 관자를 본 가족들이 그렇다면 조웅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온다. 전쟁의 진행 상황 등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도 문서로 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인들 사이에서도 장례 등의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도 부음을 전하였다. 『소현성록』(291-292쪽)을 보면 주인공의 서모가 사망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사실

이 아닐 것이라면서 만일 그렇다면 “비록 강주가 멀지만 부음이 통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반문한다. 한편 『춘향전』(270쪽)에도 이몽룡의 부친이 낙상하였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한양의 이도령에게 부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통해 가족의 부상이나 사망 등의 일이 발생하면 멀리 있는 가족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

(2) 증거로서의 문서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문서로 남겨 증거로 삼는 문화가 존재하였다. 『이춘풍전』을 보면 기생과 말썽을 일으킨 춘풍이 앞으로는 주색잡기를 멀리 하겠다고 다짐하나 부인이 믿지 않으며 앞으로 남아날 재산이 있겠냐고 한탄하자 춘풍이 수기를 쓰겠다고 자청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쓴다(332쪽).

임즈 사월 십칠 일의 김씨전(金氏前) 슈기라. --(중략)-- 가부(家夫) 니춘풍은 일푼전(一分錢)과 일두곡(一斗穀)을 불부차지지의(不復處理之意)로 여시(如是) 슈기호나니, 일후의 약유후주(若有豪酒) 방탕지폐(放蕩之弊)가 잇거든 지츠슈기(持此手記)호고 관변정스(官下政事)라. 츠필주의(自筆奏議) 가부 니춘풍이라

연월일과 함께 부인 김씨에게 쓰는 수기임을 밝히고 시작하여 그동안의 죄과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리하지 않겠으며 약속을 어기면 관아에 고발하라는 내용이다. 마지막에는 쓴 사람의 성명과 자신이 친필로 썼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춘향전』(264-265쪽)에도 등장한다. 춘향의 어머니가 춘향과 이도령의 결혼을 승낙하며 번듯하게 예식을 치르지는 못하지만 “스주단즈 겸호야 정서 한중 호야 슈시오”라고 청하자 이몽룡이 흔쾌히 받아들여 문서를 작성한다.

이처럼 구두에 의한 말보다 문자로 기록된 문서를 더 신뢰하는 문화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양 중세의 구두 문화와 차별화되는 측면이다. 월터 옹(Walter J. Ong, 1982/1995, 148-150쪽)에 의하면 중세의 서구에서는 문서보다도 구두의 증언이 더욱 신뢰받았다고 한다. 예컨대 당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결을 좌우하는 것은 문서보다도 증인들, 대부분 나이 든 지혜로운 장로들의 증언이었다고 한다. 문서를 남길 때에도 그 진위 여부는 내용보다도 문서와 함께 주고받는 칼 등의 상징물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제임스 버크(James Burke, 1985/1996, 51-52쪽)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당시 양피지에 새겨진 문자는 얼마든지 위조될 수 있는 것이기에 살아있는 증인이나 상징물이 더 신뢰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습은 인쇄매체가 확산되어 시각 중심의 문화가 성립되면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위에 인용한 소설의 대목에서는 각서 외에 다른 상징물을 신표로서 요구한 경우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문서 자체를 더

8) 다만 그 전달의 형태가 문서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부음’이라는 용어를 보면 사람을 보내 구두로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신뢰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쇄매체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이던 조선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서구의 그것과 맥락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구두 문화보다 문자 중심의 문화가 서구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오래 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문자를 신뢰하는 문화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나타났다. 『숙향전』(257쪽)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승상의 대노를 빚게 된 숙향이 승상 부인에게 하직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깨물어 자신의 방 벽에 하직 인사로 혈서를 남기고 떠난다.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혈서로 응변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식의 과정에서 그 서약의 엄중함을 상징하는 혼서를 주고받으며 이를 파기한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소현성록』(223-224쪽)을 보면 첩의 악행을 의심하여 대로한 주인공 소경이 인연을 끊을 생각에서 혼서와 채단을 가져오라고 하여 불태우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모친과 주위 사람들의 설득으로 오해를 풀고는 다시 혼서와 채단을 보내 친정에 가 있던 부인을 데려온다. 이를 통해 혼인 과정에서 주고받은 혼서로서 결혼이라는 약속의 소중함을 상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기록으로서의 문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존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일기다. 『소현성록』(381-383쪽)을 보면 주인공 소경이 쓴 일기를 누이가 보면서 그 내용 중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에 화답하는 시를 다른 종이에 써서 끼워놓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기를 쓰는 문화가 존재했으며 또한 그 일기를 남들이 보는 것도 금기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의 일기를 거리낌없이 보는 것은 인쇄문화의 산물로 평가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념(Ong, 1982/1995, 198쪽)이 당시에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인쇄 문화에 의해 개인주의가 생겨나며 이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관념도 형성되는 것이다.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이 프라이버시 관념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죽음에 임하여 유서를 남기는 문화도 존재하였다. 『소현성록』(291-293쪽)을 보면 강주에서 돌아온 주인공 소경을 서모 석파가 떠보기 위해 그동안의 집안일을 말하며 소경이 부임할 때 병중이던 부인 석씨가 그동안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너무나 황당하여 소경이 왜 부고도 없었냐며 잘 믿으려 하지 않자 석파가 ‘유서까지 남겼다’며 말을 잇는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당시에 죽음 앞두고 유서를 남기는 문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제문도 작성하였다. 『심청전』(219쪽)에는 심봉사가 부인의 제사를 지내며 제문을 지어 읽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의미 있는 글들을 벽에 걸어 놓고 보면서 의미를 되새기곤 하였다. 『이춘풍전』(337-338쪽)에서 이춘풍이 기생 추월이의 집을 방문하여 방안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부벽서를 도라보니, 동중서의 <칙문(策文)>이며, 제갈량의 <출사표>며, 도연명의 <귀거려사>와 <적벽부> · <양양가>을 귀귀(句句)마다 붙쳐 노코”라는 대목이 나온다. 고전의 여러 명문 구절을 써서 벽에 걸어 놓았음을 말해준다.

3) 책

문자 해독층에게 책 읽는 것은 교육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여가 생활의 일부로서 중요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독서라고 하면 소리 내어 읽는 낭독이었으며 의관을 정제하고 바른 자세로 마치 의례를 치르는 것처럼 책을 읽었다. 『소현성록』을 보면 어린 주인공이 단정한 자세와 맑은 목소리로 낭랑하게 『논어』를 읽는 것을 보며 그의 모친과 서모가 대단히 기뻐하는 장면(87쪽)과 성장하여 상서의 지위에 오른 소경이 밤에 의관을 바르게 하고 띠를 풀지 않고 앉아서 소리 내어 책을 읽는 장면도 나온다(232-233쪽). 『홍길동전』(26쪽)에도 홍길동이 야심한 시각에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읽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교육과 수양을 위한 목적 외에도 여가 선용으로도 독서가 자주 활용된 것 같다. 『춘향전』(261쪽)을 보면 춘향을 처음 보고 집에 돌아온 이몽룡이 춘향 생각에 경서를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자 방자보고 천자문을 가져 오라고 시킨다. 방자가 이미 다 통달한 천자문은 무엇 하러 읽느냐고 반문하자 몽룡이 “중중춘일의 그저 잇기 심심답답하야 천즈시금 읊푸며는 날보니기 제일리드”라고 대답한다. 기나긴 봄날 심심할 때는 천자문 읊는 게 시간 보내기 제일 좋다는 말이다. 배비장도 밤에 잠이 안 오자 고담 즉 『삼국지』, 『수호지』, 『구운몽』, 『서유기』, 『숙향전』 등 고전소설을 펼쳐 읽는다(『배비장전』, 292-293쪽).

책 읽는 것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현성록』(87쪽, 251쪽)을 보면 주인공의 서모 석씨가 책을 읽는 장면이 몇 차례 나온다. 성별을 불문하고 문자 해독층이 모두 책읽기를 즐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림과 노래

특정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대체물로 그림, 즉 초상화가 즐겨 이용된 것 같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망하여 직접 볼 수 없는 사람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 그리움을 달래는 장면들이 소설에 여러 차례 등장하였다.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어 그 얼굴을 기억 못하는 『소현성록』의 주인공 소경은 승상 위공의 부친이 자기 부친의 초상을 그린 것을 보고는 감격해 하자 위공이 가져가서 걸어 두고 보라고 한다(349-352쪽). 『숙향전』에도 숙향을 그리워하는 승상 부부가 숙향의 초상을 그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수소문하였으나 이미 팔았다고 하자 황금 백 냥을 주며 다시 물러주고 찾아오게 한다. 어렵게 숙향의 초상을 구한 승상 부부는 “진실로 숙향이 돌아온 듯하여 화상을 안고 통곡함을 마지이니하며 침방에 걸어 두고 조석으로 식사를 놓고 슬퍼하더라”는 것이다(264쪽).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을 대하듯 조석으로 밥상을 차려 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산업화 이후 이농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사회적 수요 속에서 사진이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Williams, 1975/1996, 264-265쪽).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그림, 즉 초상화가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사회적으로 중요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이 노래로 표현되어 주로 아이들에 의해 불리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조웅전』(65-66쪽)을 보면 동궁이 폐위된 데 대하여 주인공 조웅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장안을 거닐다가, 아이들이 시류를 풍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는다. 노래의 내용은 지금은 시절이 수상하니 유유자적하다가 나중에 때를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현실에 대한 우려나 정치에 대한 불만을 짊고 간결한 음악적 언어로 표현한 것을 참요(讖謠)라고 한다(심경호, 2012, 4쪽).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민심이 노래의 형태로 불리면서 집단적 의사 표현의 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5) 신표

사람들 사이에, 특히 남녀 사이에 신뢰와 애정의 표시로 신표를 주고받았던 문화가 존재하였다. 조웅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유숙했던 집의 처자와 인연을 맺고는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나자 그 처자가 이렇게 가면 소식을 알기 어려우니 신표를 하나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조웅은 가지고 있던 부채에 글귀를 몇 자 적어 건네준다(『조웅전』 112-119쪽). 『배비장전』(261-267쪽)에도 기생 애랑이 떠나는 정비장에게 헤어지기 간절하니 신표를 달라며 이것저것 요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신표는 문자가 보편화되기 이전 즉 문맹이 다수이던 시절에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문자로 표현된 글보다 사람의 마음을 증명하는 상징물이 더욱 신뢰할만한 증거로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Burke, 1985/1996, 52쪽). 이 상징물로 어떤 사건이나 관계를 상징하고 기억을 되새기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6) 사람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전술한 편지의 전달도 이의 중요한 사례가 되겠지만 그밖에도 사람, 대부분 노비들이 직접 구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등장하였다. 가장 많은 것은 남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이다. 자기 집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집을 방문하면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소리를 듣고 확인차 마중 나온 노비들에게 본인의 신분과 함께 방문 사실을 말하면 노비가 이를 주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명함을 들인다’고 표현하였다(『소현성록』 61쪽, 『숙향전』 275쪽 등). 여기서 명함이란 오늘날 처럼 인쇄된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성명과 신분을 밝혀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도 사람을 시켜 긴요한 전갈을 전달하는 사례도 많이 등장하였다. 춘향의 자태를 처음 보고 반한 이몽룡이 방자를 보내 만나기를 청한다(『춘향전』, 259쪽). 『배비장전』(288-290

쪽)에서도 배비장이 방자를 불러 “네 저 건너 빅포장 박게 가서 문안 한번 드리고, 그 녀인케 니말로 전갈하되”라고 말하며 전달 내용을 일러 준다. 이렇게 직접 전달하기 어렵거나 급한 전달 사항이 있는 경우 대개 노비를 시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을 통해 이 시대의 다양한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살펴보았다. 앞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먼저 구두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을 보면, 가족이나 친척 관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혈연의 상하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윗대는 아랫대에게 하대를 하며 반대로는 깎듯한 경어체를 사용하였다. 동기간에도 나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성별이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손위의 사람은 손아래에 대하여 성별이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하대를 하였으며 반대로는 높임말을 사용하였다.

비혈연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는 사이에는 나이나 지위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대체로 상호 존중하는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모르는 사이에서는 신분이 가장 큰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반들은 상민이나 천민에 대해서 하대를 하였다. 신분을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옷차림이나 행색 등을 통해 이를 짐작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갔다.

집단커뮤니케이션의 차원을 보면 관청과 개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문서가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문맹이 대부분이었기에 구두 커뮤니케이션도 사용되었다. 관청에서 개인에게 전달 사항이 있을 경우 사람을 보내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백성들도 관청에 와서 자신의 사연을 직접 하소연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공동의 이슈나 관심사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등장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정보가 확산되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공론이 형성되어 이에 따라 대책을 모색하였다. 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은 소설에서도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대개 마을의 우물가나 빨래터, 주막 등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어 갔다. 바깥 출입에 제약을 받던 양반가 여인들은 하인을 통해 마을의 소문이나 기타 정보를 듣는 경우가 많았다. 주막은 그 특성상 마을의 단위를 넘어서는 정보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 외지인들도 출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외지의 정보를 얻기도 하였으며 또한 외지인들도 주막에서 그 마을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매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도 당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편지이다. 이는 가족이나 지인이 멀리 떨어져 지게 된 경우에 많이 이용되었으며 주로 사람을 통해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를 통해 관청의 정보를 일반인들이 접하기도 하였다. 선문이나 판자 등을 통해 가족의 임면 사항 등을 미리 알게 되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방이 이용되었다. 이 방은 소재 파악이 어려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쌍방의 중대한 약속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다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겨 증거로 삼는 문화가 존재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지배하던 전통시대에 문서보다는 구두의 증언이 더 신뢰받던 서구 문화와는 차별되는 측면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자 문화를 신뢰하는 전통이 한국 사회의 경우 서구의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은 것임을 말해준다. 서구의 경우는 인쇄 문화가 확산되어 가면서 문자를 신뢰하는 문화가 서서히 형성되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구두 커뮤니케이션 시대부터 문자를 신뢰하는 문화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그밖에도 일기나 유서, 제문 등 기록을 남기기 위한 형태의 문자 커뮤니케이션도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특히 일기의 경우를 보면 남의 일기를 거리낌 없이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쇄 문화가 정착되면서 나타나는 근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프라이버시 관념이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책은 문자 해독 계층 내에서만 성별을 가리지 않고 수양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이용되었다. 특히 당시의 책읽기는 곧 낭독이었으며 의관을 정제하고 자세를 바로 하여 마치 의례를 치르는 것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리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의 방법은 인쇄 매체가 보편화되어 텍스트도 다양화되고 공공장소에서의 책읽기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인쇄 매체 이전의 책읽기가 낭독으로 이루어진 것은 서구와도 일치하는 문화였다.

그 외에 그림이 죽거나 헤어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주요 매개체가 되었으며 사회적 관심사나 이슈에 대해서는 참요 등 노래의 형태로 이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형성되고 유포되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직접 보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조선 시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는 인쇄매체가 보편화되기 이전 대부분의 사회가 그러했듯이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면서 문자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는 가족이나 친족, 마을 등 기존의 공동체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유교적 질서의 바탕 위에서 신분이나 연령 등이 커뮤니케이션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이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기록된 문서가 더 신뢰받았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는 인쇄매체 이전에는 문서 보다 구두의 증언을 더 신뢰했던 서구 사회와는 차별화되는 측면으로서 앞으로 그 구체적 양상이나 배경, 맥락 등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이 논문은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조선시대 한글 소설에 나타난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귀납적인 방식으로 분석, 정리한 것이다. 가능한 많은 사례를 추출할 수 있도록 여러 장르를 포괄하여 다수의 소설을 분석했지만 본 논문의 분석이 그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측면을 포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료 발굴과 체계적 분석을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길호·김현주 (1995).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서울: 한나래.
- 김광옥 (1993). 조선조 대항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참요고.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1-25.
- 김복수 외 (1995). 『조선시대 커뮤니케이션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세철·김영재 (2000). 『조선시대의 언론문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주 (1999). 조선조 민간인쇄조부의 몇 가지 쟁점. 『언론학연구』, 제2집, 265-299.
- 김영주 (2002). 조선왕조 초기 공론과 공론형성과정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2권 3호, 70-110.
- 김영주 (2007). 신문고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9호, 250-283.
- 김영주 (2008a). 조보(朝報)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3호, 247-281.
- 김영주 (2008b).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권당(捲堂)·공관(空館)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 4호, 253-298.
- 김영주 (2009a). ‘언론’ 유사 개념으로서의 ‘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5권 1호, 51-85.
- 김영주 (2009b). 조선시대 구언제도의 절차와 내용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9권 4호, 135-169.
- 김영주 (2010). 조선시대 공론 연구. 『언론학연구』, 제14권 제1호, 41-73.
- 김영주 (2011). 조선시대 동요연구. 『언론학연구』, 제15권 제2호, 41-75.
- 김정탁 (1992). 민중의 커뮤니케이션적 인식. 『한국언론학보』 제27호(1992.1), 59-96.
- 나은영 (2002).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 박영학 (1990). 『동학운동의 공시 구조』. 서울: 나남.
- 박일용 (1991). 인물형상을 통해서 본 <구운몽>의 사회적 성격과 소설사적 위상. 『정신문화연구』 제14권 3호(통권44호), 187-207.
- 박정규 (1983).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 신문에 관한 연구: 조보와 그 유사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철주 (2011). 신소설에서의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의 입말체 연구. 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1.5), 31-55.
- 심경호 (2012). 『참요 : 시대의 징후를 노래하다』. 서울: 한얼미디어.
- 윤병철 (2006). 『조선, 말이 통하다: 민중과 사대부,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광호 (2005). 『근대국어문법론』. 서울: 태학사.
- 이민희 (2009).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 『정신문화연구』, 제32권 1호(통권 제114호), 129-154.
- 이상길 (2007). 전근대 미디어의 사회문화사. 유선영 외 편.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1-96쪽.
- 이상희 (1993). 『조선조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 서울: 나남.
- 이이효재 (2003). 『조선조 사회와 가족: 신분상승과 가부장문화』. 서울: 한울.
- 정일권 (2010).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와 동학운동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요소 분석. 『한국언론학보』,

54권 6호, 81-102.

- 조동일 (2001).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2』. 서울: 지식산업사.
- 조선일보사 (2010). 『조선일보90년사 상』. 서울: 조선일보사.
- 주정이 (2000). 조선후기 가면극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 최병진 (1983). 조선 봉건사회 해체기의 커뮤니케이션 마당의 구조변화: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승희 (1976). 『조선 초기 언관·언론연구』.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최승희 (2004). 『조선 초기 언론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최영목 (1987). 조선봉건사회 해체기의 민중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관한 연구 조선봉건사회 해체기의 민중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하영휘 (2008). 『양반의 사생활: 조병덕의 편지 1,700통으로 19세기 조선을 엿보다』. 서울: 푸른역사.
- Burke, James (1985). *The Day the Universe Changed*. 채백 번역(1996). 『세계언론사』. 서울: 한나래, 49-68쪽.
- Coulet, Corinne (1996). *Communiquer en Grèce ancienne*. 이선화 역(1999). 『고대 그리스의 의사소통』. 서울: 영림카디널.
- Goldmann, Lucien (조경숙 역, 1982).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청하.
- Ong, Walter J. (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이기우·임명진 역 (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 Williams, Raymond (1975).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채백 번역(1996). 『세계언론사』. 서울: 한나래, 261-274쪽.

(투고일자: 2013. 11. 28, 수정일자: 2014. 1. 17, 게재확정일자: 2014. 1. 25)

ABSTRACT

A Study on the Modes of Human Communication Reflected in the Korean Novels of Late Chosun Dynasty

Baek Chae*

This paper analyzed how people of Late Chosun Dynasty communicated through the 8 Korean novel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fictitious world of novels reflect the social circumstances of that time. In oral communication, hierarchical relationship of kin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Between strangers social status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e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the authorities was performed mostly by oral because the majority of people were illiterate. In village community, information on the common interest diffused by oral communication in bank of stream, parish pump and auberges. Through this process the public opinion of community was formed. In media communication diverse patterns were performed, such as letters, written materials, and diary. Contrary to the western culture, it was analyzed that written material was taken more reliable than oral communication. The fact that reading diaries of others were permitted showed that the concept of privacy had not existed yet. Books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and leisure.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communication of people in Late Chosun Dynasty was mainly by oral communication and supplemented by written materials.

Keywords: communication history, Chosun Dynasty, people, human communication, oral communication, group communication, mediated communic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